

2013년 상반기 4124억원 사업비 절감

- 지속 혁신 활동으로 올해 9917억원 사업비 절감 추진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13년도 상반기 중에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와 시공방법 개선, 설계VE를 통한 예산 절감,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4124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으며, 올해 말까지 9917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본부는 그간의 관행적인 설계와 시공방법에서 탈피하여 ▲부분선의 선형을 조정, 노스가동 분기기의 크기(#46-#26으로 저변화)를 축소하는 설계와 터널 슛크리트 강섬유 투입량을 변경하는 등의 시공방법 개선으로 1718억원, ▲장항선 개량 2단계, 동두천~연천 노반 기본설계의 중단선형 하향 조정,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보완설시설계 등 총 10개 사업의 24건 설계VE 시행으로 768억원, ▲부



산~울산 복선전철 5~8공구 노반 보완설시설계, 신안산선 1~8공구 노반설시설계 등의 시공성 향상 및 품질개선, 설계유류 정정 등 총 13개 사업의 32건에 대한 설계심사 추진으로 818억원 절감 등으로 3304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또 철도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시 ▲금융시장 동향과 투자수요를 철저히 분석하여 시장 평균금리보다 낮은 금리(△0.11%)로 자금을 조달해 이자비용 142억원 절감, ▲저금리 채권을 발행하여 고금리의 정부융자금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상반기에 만 678억원 등 금융비용 820억원을 절감했고, 올해 말까지 총 12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본부는 그동안 고속철도 건설부채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2년도에는 1조 205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고, 올해도 9917억원의 사업비 절감 목표를 설정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본부 관계자는 개별 절감항목 발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철도기술발전 로드맵과 연계된 장기적인 사업비 절감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강력한 혁신 활동을 통해 예산절감 및 수익창출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공사손해보험 입찰공고

- 총 7개 공구 일괄계약방식 보험가입규모 1조 404억원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7월 18일 원주~강릉 철도건설 7개 공구에 대해 공사손해보험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입찰은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주~강릉간 7개 공구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일괄계약방식' 경쟁입찰로, 입찰참가 보험사가 8월 7일까지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보험요율)를 제출하면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70%, 보험요율 30%의 비율로 종합평가하여 최고점수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을 통해 8월 중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계약처가 이번 입찰부터 종전에 적용하던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보험사(지급능력비율 150% 이상,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의 단독입찰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당초 3개사에서 최대 7개사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의 폭이 확대됨은 물론, 추가적인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가입규모 이상의 매출실적(원수보험료) 기준미달로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던 중소보험사의 경우도 지급능력비율(100% 이상)과 신용평가등급(BBB- 이상)만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발주자 일괄계약방식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경쟁입찰 제도는 계약상대자가 공구별로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공사손해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이 2012년 공기업 최초로 도입했으며, 시행 이후 약 95억원(2012년 72억원, 2013년 상반기 2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건설현장 실시간 안전관리 시행

- SNS로 실시간 안전 점검·확인하여 사고예방 -



안전실(실장 하복수)에 따르면 이사와장 5개 지역본부 및 철도건설현장 관계자간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소통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전국 281개의 철도건설현장에는 1만1000여

명의 현장 근로자가 있어 일방향 점검체계로는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고 기상이변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쌍방향·다자간 네트워크 체계를 이용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안전관리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최근 국지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이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어, 기상특보 발생 시 이사가장이 직접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및 주의를 발령하면 스마트폰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동시 공유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즉시 이를 반영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안전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첨단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 기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요뉴스 ('13.7.20~'13.7.26)

- SNS 덕에 ... 철도 공사장 폭우에도 무사고 (중앙일보17)
- 철도공단 고졸직업 학비 지원 (대전일보09)
- 남부대륙철도, 지역계약 우선순위 2위 (대구일보02)
- "도내 신규 철도사업도 국비지원" (경인일보02)
- 침북방치...하천오염·약취 유발/ 의왕시, 코레일·철도시설공 고발 (경기일보01)
- 신혼부부 보금자리, '행복주택' 노려보세요 (경향신문18)
- 빛 1兆 넘는데... 도실철도공, 수백억 '보너스 잔치' (조선일보14)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세계 두 번째 실용화 (파이낸셜24)
- 철도공단, 해외 철도사업 핵심인력 양성 (서울경제30)
- 반론보도문 (경인일보23A)
- 철도시설공단, 대전역 쪽방마을에 선풍기 20대 기증 (충청투데이18)
- 일감 몰아주기 課稅 中企 일부는 제외키로 (조선일보01)
- 행복주택지구, 상업시설·사회적기업 유치해 슬럼화 막는다 (파이낸셜23)
- 中~유럽 1만Km '철도 뉴실크로드'... 화물機 운송비용의 20% 불과 (조선일보08)
- 폐철도 부지 숲길로 탈바꿈 (국민일보10A)
- 철도공단, 대전 쪽방마을에 선풍기 기증 (내일신문15)
- 국토부, 건설현장 15곳 실태 점검 (한국경제29)
- 복선전철 종착역 조기확정 급하다 (강원일보02)
- 공기업 절반 빚더미 건설·造船보다 심해 (조선일보01)
- 공기업 빚, 자산보다 빨리 증가... 자본잠식 위기 (조선일보06)
- 차대통령 "동서고속화철도, 유라시아철도까지 염두에 둔 것" (조선일보06)
- 도시철도 10개 노선, 교통 소외지역에 깐다 (동아일보14)
- 김포도시철도 5개공구 10개 컨소시엄 입찰참가 (파이낸셜25)
- 동서고속화鐵 내년 예산 반영 '축각' (강원도민01)
- 여주~원주 전철사업 활로 뚫렸다 (강원일보18)
- 인덕원~수원·월곡~판교 복선철 조속 추진을 (경인일보20)
-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 시험운전 (경기일보03)
- 30조 용산개발 땅, 세금 못내 '공매신세' (한국경제25)
- 스페인 최악의 열차 탈선사고...80명사망, 140명부상 (조선일보16)
- 황우여 "GTX, 꿈의 교통수단...긴밀히 뒷받침 하겠다" (경기일보04)
- 철도투자·감세·수출지원...중 '미니부양책' 가동 (한국경제08)
- 중소기업과 조선·건설·해운업종은 세무조사 줄이기로 (조선일보03)
- 돈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서울경전철, 또 포퓰리즘인가 (세계일보23)

고졸 직원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시행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한다'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고졸 직원의 학위취득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공단 고졸 직원이 2014학년도부터 아간대학, 사이버 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등을 자신의 진로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하여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면 등록금을 연간 500만원 내에서 지원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도록 하며 학사학위 취득 후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의 추가 이수도 가능하다.

국내외 철도건설사업의 설계·감리·사업관리 외에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개량 및 철도자산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은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 인프라를 통해 학벌 위주가 아닌 전문성과 실용성 위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2012년부터 고졸 직원의 신규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단은 인재양성을 위해 우송대학교와 공동으로 사내 대학원인 「복색철도대학원」을 2012년부터 개설하여 8월에 최초로 15명의 석사가 배출될 예정이며 현재 사내 대학원 및 7개 대학에서 총 46명의 직원이 일과 업무를 병행하는 석·박사 학위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기관 최초 익명신고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국민 감시와 제보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제 대폭 손질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안전, 건설 및 시설관리 분야 법률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에 대해 공공기관 최초로 익명신고제 도입하고 자신신고 감면제를 실시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보상금 지급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경영성과처는 '12년 8월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제정 이후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와 관련된 4건의 공익신고만이 접수되는 등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객관적 증빙을 첨부한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내부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배제하며, 임직원 본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을 도입했다.

또한 수익증대, 예산절감이 있는 경우만 지급하던 신고보상금도 영업정지, 벌금 등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익침해 행위 예방 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영성과처 관계자는 "그동안 미흡했던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실시공 예방, 철도 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해발생 우려 철도 구거(BOX) 시설물 전수 조사 실시

- 철도횡단 소하천 수해 예방활동 강화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전국의 소하천 개천을 횡단하는 철도 BOX 시설물(경부선 등 26개 노선, 585개 소, 4545m)의 수해발생 우려 요인 여부 확인을 위해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폭우, 국지성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수로가 넘쳐 주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사전 대응하기 위함이다.

주로 통행 및 수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철도횡단 BOX 시설물 중 수로용 BOX에 대해 과거 수해발생 이력, 홍수위 부족 및 BOX 단면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수로의 하저심도, 흙 축적여부 등을 확인 후 하상정비, 배수로 정비 등의 내용도 하천관리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개량·확장 등이 필요한 개소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투자우선순위에 포함해 철도시설개량사업 중 기 투자계획에 반영해 개량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본부는 앞으로도 철도의 수해예방을 위해 BOX 시설물뿐만 아니라, 노후교량, 경사지 등의 개량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 중 원주~횡성군 구간 본격 착공

강원본부(본부장 이동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 중 평창~강릉 구간 5개 공구를 착공한 데 이어 이번에 후속으로 원주~평창간 6개 공구와 강릉시내 구간 1개 공구 등 7개 공구를 본격 착공한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후속 착공 구간의 사업일시계획은 6월 25일 승인을 받고, 7월 16일부터 14일간 본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해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한 뒤 8월부터 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협의매수를 실시한다.

한편 7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하는 노반공사는 지장물 이설 및 도로 적용허가와 하도급업체선정을 마치고 우선적으로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는 교량 공사 및 터널 공사용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7월 말부터 일제히 착공에 들어간다.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전체 노반 공사금액(1조 7081억원) 중 약 10% 정도(1759억원)는 도내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사로 참여하게 되고, 일부 하도급도 지역 업체가 참여하여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 조 사

- 영남본부 시설/지원처 탁당래 과장 방문상 - 발인 : 2013년 7월 23일
- 충청본부 건설/기술처 강장택 과장 부친상 - 발인 : 2013년 7월 24일